

주간농업·농촌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년도 개편 결과

2010.03.15 미래정책연구실

□ 2005년 기준년 개편의 추진개요

- 한국은행은 통상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1차 개편)과 12월(2차 개편)로 2단계로 나누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개편함.
 - 1차 개편: 개편대상 시계열(1970~2008년) 중 2000~08년 계열
 - 2차 개편: 개편대상 시계열(1970~2008년) 중 1970~99년 계열
- 2000~08년 계열을 대상으로 한 **1차 개편** 주요내용
 - 1차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15개 부표**로 구성
- 2000~08년 계열을 대상으로 한 **2차 개편** 주요내용
 - 2차 개편작업은 1970~1999년 계열을 대상으로 하고 1차 개편 시 작성하지 못한 나머지 **3개 부표*도 함께 작성**
 - * 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V표),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 2차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부표 18개**(연간계열 18개, 분기계열 8개)로 구성

<단계별 개편대상 계열>

개편 대상	1차 개편	2차 개편
	2000~2008년 계열	1970~1999년 계열
연간 계열	· 4개 종합계정 · 제도부문별 생산계정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 15개 부표	· 4개 종합계정 ·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 제도부문별 자본계정 · 18개 부표(3개 부표 추가)

*종합계정 :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자본거래계정, 국외거래계정

*부표 : 총 19개 부표중 1차 개편 시에는 주요 총량지표와 관련되거나 이용도가 높은 15개 부표를 우선 제공하고 4개 부표는 2차 개편결과 공표시 제공

□ 기준년 개편의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민계정은 1955년 이래 5년 주기로 총 9회에 걸쳐 기준년을 변경하여 왔으며 이번 제10차 기준년 개편은 기준년인 2000년을 200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1) 기준년의 변경(2000년→2005년)및 국민경제의 구조변화 반영

- 2000년 이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및 생산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
 - 비교년이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최근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고 신상품의 등장과 기존 상품의 사양화 등도 반영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가 통상 5년 주기로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변경

2) 주요 국민경제의 규모 수정 및 기초통계와의 기준년 일치

- 국민소득 추계에 이용하는 물가통계, 생산관련 통계 등 여러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켜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비교년 추계 시 이용하지 못하였던 기초통계(산업연관표, 서비스업 총조사 등)를 근거로 경제규모를 조정
 - 2005년 기준 산업생산지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등의 개편결과를 반영

<주요 지수의 기준년(2005년) 개편상황>

통계명	작성기관	개편완료시기	주요이용부문
생산·출하·재고지수	통계청 산업동향과	2008년 2월	제조업 생산 및 생산자 제품 재고 추계 등
서비스업 생산지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2008년 3월	서비스업 생산 등
생산자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008년 6월	디플레이터 산정
수출입물가지수	물가통계팀	2008년 1월	"
수출입단가지수	국제수지팀	2008년 3월	"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물가통계과	2006년 12월	"
농가판매(구입)가격지수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2008년 10월	채배업 디플레이터 산정 등

3) 연쇄가중법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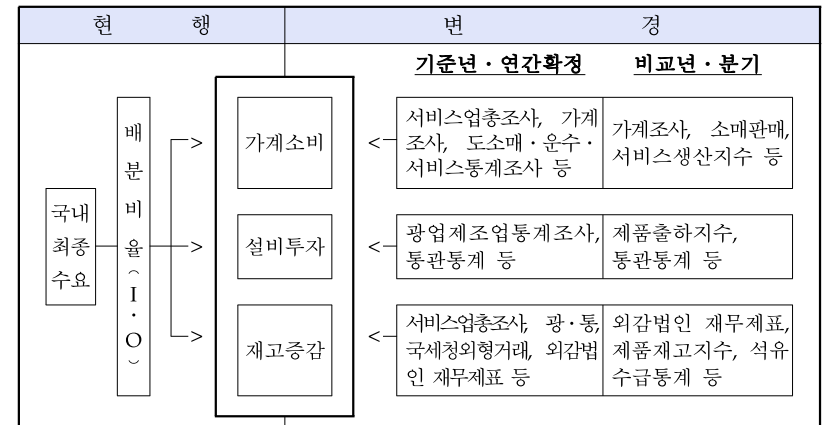
-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실질 GDP 추계방법**을 기존의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에서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으로 변경함으로써 최근의 경제상황을 더욱 신속히 반영
 - **고정가중법**은 고정된 기준년(중전 2000년)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계속 사용하는 반면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 년도의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사용
- **연쇄가중법 도입**을 통해 최근의 산업 및 기술구조의 변화, 상품의 등장 및 퇴장 등을 매년 반영할 수 있어 GDP 통계의 경제현실 반영도를 제고
 - 정보통신산업 중심의 급속한 기술혁신 등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현상을 완화**
-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권고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GDP 추계기법 선진화 및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¹⁾
 - OECD 및 EU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연쇄가중법에 의해 실질 GDP와 경제성장률을 추계*하고 있어 이번 추계방법 변경으로 우리나라 GDP 통계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향상
 - * 금번 개편 시 우리나라가 연쇄가중법을 도입함에 따라 2009.3월 현재 OECD 회원국(30개) 중 멕시코를 제외한 29개국이 연쇄가중법을 도입

1) UN은 1993년에 개정 국민계정체제인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 개정 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 실질 GDP는 생산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 GDI 또는 실질 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임.
 한때 소득지표로 이용하였던 실질 GNP는 물량변화를 반영하는 생산지표(실질 GDP)와 소득지표(실질 국민총소득)가 혼합된 지표로서 성격이 불명확하여 '93 SNA에서는 이를 실질 GNI로 대체. 생산지표인 실질 GDP를 소득지표인 실질 GDI 또는 실질 GNI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입가격(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국외유출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분을 나타내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개념 도입.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 국민총소득
 명목 GNP는 생산물량 변화 이외에 임금 및 기술수준, 기업체 재산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무역손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득지표이므로 현행대로 이용하되 명칭만 명목 GNI로 변경.

4) 지출접근법 도입

- **개편전** 지출 측 GDP는 주로 생산국민소득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흐름법**(commodity flow method)에 의해 추계되었으나, **개편후**에는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지출항목을 직접 추계하는 지출접근법의 도입**으로 통계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는 한편 통계편제 기법 선진화 및 국제적 추세에 적극 부응
 - 모든 산출물이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요자에게 이르는 여러 단계의 **유통경로를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지출항목을 추계하는 방법**
 - 가계소비의 경우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조사, 가계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총액 및 부문별 금액을 직접 파악
 - **설비투자**는 상품흐름법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편전보다 하위수준의 추계 기초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도를 제고
 - * 설비투자의 경우 정합성을 갖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들도 상품흐름법으로 통계를 작성
 - **재고증감**은 기업회계기준의 각종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고 원재료 및 소모품, 재공품, 완성품, 재판매용 재화 등 재고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추계

<추계방법 변경 개념도>



5) 부문분류의 확충 및 추계방법 개선

- 2000년 개편 이후 새로이 제안된 국제기준의 신규 권고안 등을 반영하고 **부문분류의 확충 등 제공통계의 세분화 및 다양화**로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고 추계방법의 개선으로 GDP 통계의 정도 제고를 도모
- 정보통신업 신설 등 2000년 개편 이후 새로이 제안된 국제표준산업분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부문분류를 확충
- 계절조정계열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농림어업내 재배업의 생산시기를 분기별 균등 계상 방식으로 변경

□ 주요 개편결과

- 이번 개편에서는 개편대상 시계열(1970~2008년)을 2000~08년 계열과 1970~99년 계열로 나누어 개편
- 2000~2008년 계열을 대상으로 한 **1차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 부문별 생산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경제 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15개 부표**로 구성
- 1970~1999년 계열을 대상으로 한 **2차 개편 통계표**는 종합계정, 제도 부문별 소득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부표 18개**(연간계열 18개, 분기계열 8개)로 구성되었으며 1차 개편시 작성하지 못한 나머지 3개 부표(경제활동별 재화와 서비스 산출표,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경제활동별 설비투자)도 함께 작성

1) 명목 국내총생산(GDP)

- 기준년인 2005년의 신계열(개편계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865조 2,409억원으로 구계열(810조 5,159억원)보다 54조 7,250억원 확대 (6.8% 베이스업)
- 이는 산업별 센서스 및 산업연관표 작성결과의 반영, 경제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추계방법의 개선, 신상품 포착 등에 주로 기인

<명목GDP 규모의 신·구계열 비교>

연도	신계열(A)	구계열(B)	차이(A-B)	(단위 : 억원, %)
				Base-up률 ((A-B)/A*100)
1970	27,751	27,639	112	0.4
1975	104,778	103,861	917	0.9
1980	391,096	387,749	3,347	0.9
1985	856,991	840,610	16,381	1.9
1990	1,913,828	1,866,909	46,919	2.5
1995	4,096,536	3,988,377	108,159	2.7
2000	6,032,360	5,786,645	245,715	4.2
2005	8,652,409	8,105,159	547,250	6.8

2) 1인당 국민소득(GNI)

- 기준년인 2005년의 미달러화표시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8,439억 달러로 구계열(7,901억달러)대비 538억달러 증가
- **1인당 국민총소득(Per Capita GNI)**도 구계열(16,413달러)보다 1,118달러 늘어난 17,531달러를 기록

<달러화표시 명목 GNI 및 1인당 GNI 비교>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GNI (억달러)	신계열 (A)	82	214	633	961	2,702	5,292	5,308	8,439
	구계열 (B)	82	212	627	942	2,635	5,155	5,096	7,901
	차 이(A-B)	0	2	6	19	67	137	212	538
1인당 GNI (달러)	신계열 (A)	255	607	1,660	2,355	6,303	11,735	11,292	17,531
	구계열 (B)	254	602	1,645	2,309	6,147	11,432	10,841	16,413
	차 이(A-B)	1	5	15	46	156	303	451	1,118

3) 경제성장률

- 신계열의 2001~07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은 4.7%로 구계열(4.7%)과 동일한 수준
- 1971~99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은 8.4%로 구계열에 비해 1.1%p 상승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비교>

(단위 : %, %p)

	71~79 연평균	80~89 연평균	90~99 연평균	71~99 연평균	00~08 연평균	71~08 연평균
신 계 열 (A)	10.2	8.5	6.6	8.4	4.8	7.5
구 계 열 (B)	8.3	7.6	6.1	7.3	4.9	6.7
차 이 (A-B)	1.9	0.9	0.5	1.1	-0.1	0.8

- **경제활동별 연평균 성장률**은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구계열에 비해 1.6%p 높아졌으며 농림어업(0.4%p)과 광공업(0.8%p)도 상승하였으나 건설업은 0.7%p 하락

<경제활동별 성장률 비교 (1971~1999년 평균)>

(단위 : %, %p)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¹⁾
신 계 열 (A)	2.4	11.5	7.4	8.2
구 계 열 (B)	2.0	10.7	8.1	6.6
차 이 (A-B)	0.4	0.8	-0.7	1.6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 **지출항목별 연평균 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이 구계열에 비해 각각 0.4%p 높게 나타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도 0.3%p 상승한 반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구계열 수준을 유지

<지출항목별 성장률 비교 (1971~1999년 평균)>

(단위 : %, %p)

	최 종 소 비 지 출		총 고 정 자본형성	재 화 와 서비스의 수 출	재 화 와 서비스의 수 입
	민 간	정 부			
신계열(A)	6.8	5.7	10.3	15.7	12.0
구계열(B)	6.4	5.6	9.9	15.4	12.0
차이(A-B)	0.4	0.1	0.4	0.3	0.0

□ **개편계열로 본 우리 경제의 변화 추이**

1) **경제규모**

-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규모는 1970년 2조 8,121억원에서 2008년에는 1,030조 6,363억원으로 367배 확대되었으며, **1인당 GNI**도 1970년 9만원에서 2008년에는 2,120만원으로 243배 증가
- 이에 따라 미달러화로 표시한 1970년의 GNI는 82억달러로 세계 38위였으나 2008년에는 9,347억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하였으며, 1970년 1인당 GNI는 255달러(세계 119위)에서 2008년에는 19,231달러로 **세계 52위** 기록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총소득 (명목가격 기준)>

	GNI(억원, 억달러)		1인당GNI(만원, 달러)	
		순위		순위
1970	28,121 (82)	38/187	9 (255)	119/187
1975	103,732 (214)	36/187	29 (607)	114/187
1980	384,792 (633)	29/187	101 (1,660)	84/187
1985	836,666 (961)	19/187	205 (2,355)	70/187
1990	1,912,843 (2,702)	17/216	446 (6,303)	54/216
1995	4,080,136 (5,292)	11/210	905 (11,735)	46/210
2000	6,001,588 (5,308)	12/210	1,277 (11,292)	47/210
2005	8,644,273 (8,439)	11/210	1,796 (17,531)	46/210
2008	10,306,363 (9,347)	15/210	2,120 (19,231)	52/210

주 : ()내는 미달러기준, 순위의 분모는 전체 국가 수
자료 : UN Statistical Database, Oct. 2009

2)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및 실질 GDI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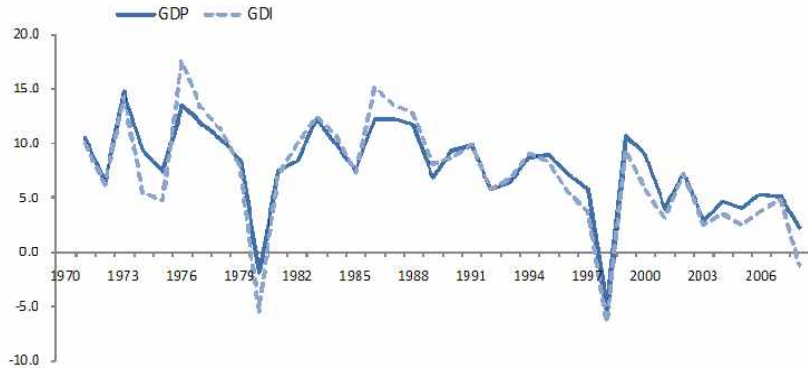
- 신계열로 본 우리나라의 **1971~2008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5%로 나타났으며,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연평균 7.1% 증가

-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격하락 속도가 빠른 ICT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실질 GDI 증감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

<실질 GDP성장률 및 실질 GDI증감률 추이>

(단위 : %, %p)

	71~79 연평균	80~89 연평균	90~99 연평균	00~08 연평균	71~08 연평균
실질 GDI 증감률(A)	10.0	9.0	5.9	3.5	7.1
실질 GDP 성장률(B)	10.2	8.5	6.6	4.8	7.5
차이 (A - B)	-0.2	0.5	-0.7	-1.3	-0.4
교역조건 변화율	-1.1	1.1	-1.9	-3.1	-1.2
수출디플레이터 상승률	14.7	7.1	1.8	0.6	5.8
수입디플레이터 상승률	15.9	5.9	3.7	4.0	7.2



3) 생산구조

- 생산구조면에서는 1970년 이후 **농림어업의 비중이 급감**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상승.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그 추세가 이어졌으나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

-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구조(2008년)는 **일본(2006년)에 비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의 비중은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음.

<생산구조 (명목기준)>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8	일본 (2006)
농림어업	29.1	16.0	8.7	4.6	2.5	1.5
광공업	20.2	26.0	27.4	28.6	28.3	21.7
(제조업)	18.5	24.6	26.6	28.3	28.1	21.6
전기 가스 수도 사업	1.3	2.1	2.1	2.5	1.8	2.3
건설업	5.1	7.9	10.4	6.9	7.0	6.4
서비스업 ¹⁾	44.3	48.0	51.5	57.3	60.3	68.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공급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오락 서비스, 기타서비스를 포함
자료 :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연보

4) 지출구조

- **민간소비** 비중은 1970년 74.5%에서 1988년 49.1%까지 낮아졌다가 그 이후 계속 높아져 2008년에는 54.5%를 기록하였으며, 정부소비지출은 외환위기(1997년 11.5%)를 거치면서 비중이 계속 확대되어 2008년 15.3%를 기록
-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970년 이후 기업의 활발한 시설투자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설비투자의 둔화 등으로 하락세
- **수출입**은 수출주도의 성장 및 원자재·부품·기계 등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으로 그 비중이 크게 상승
- 우리나라의 지출구조(2008년)는 일본(2006년)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은 낮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높은 편이며 특히 수출입 비중이 현저히 높음
- **가계소비지출**을 형태별로 보면 서비스 소비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등 재화소비 비중은 하락

- 목적별로는 음식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등 생활필수품은 비중이 낮아진 반면 의료보건, 오락문화, 교육 등은 비중이 상승
- 총고정자본형성내에서 설비투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약 40% 수준을 나타냈으나 2000년대 들어 위축되면서 2008년 32.0%까지 낮아진 반면 건설투자의 비중은 건물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상승
-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1970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08년에는 내수경기의 위축을 반영하여 110.6%까지 상승

<지출구조 (명목기준)>

	1970	1980	1990	2000	2008	일본 (2006)
최 중 소 비 지 출	84.6	75.4	62.4	66.7	69.7	74.8
민 간 소 비 지 출	74.5	62.7	50.7	54.8	54.5	57.1
정 부 소 비 지 출	10.1	12.7	11.8	12.0	15.3	17.7
총 자 본 형 성	26.1	32.9	38.1	30.6	31.4	24.0
총 고정 자본 형성	25.5	31.9	36.2	30.0	29.3	23.5
재 고 증 감 및 귀 중 품 순 취 득	0.6	0.9	1.8	0.6	2.1	0.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3.2	31.2	27.6	38.6	52.9	16.1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3.5	39.8	28.3	35.7	54.1	14.8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연보

5) 분배구조

-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내역을 보면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1970년 33.8%에서 2008년에는 45.7%로 상승
 -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도 꾸준히 높아져 2008년 60.6%를 기록
- 기업 및 재산소득의 비중은 1970년의 48.5%에서 2008년에는 29.7%로 하락
-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오다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하여 소폭 하락한 반면 생산 및 수입세의 비중은 대체로 11%대 수준을 유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명목기준)>

	1970	1980	1990	2000	2008
피용자보수	33.8	39.2	44.5	43.2	45.7
기업및재산소득	48.5	39.0	33.6	31.2	29.7
고정자본소모	7.5	8.5	10.7	13.8	13.2
생산 및 수입세 (공제) 보조금	9.2	11.9	10.7	11.7	11.4
국외순취경상이전	1.1	1.3	0.4	0.1	0.0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소득분배율	41.0	50.1	57.0	58.1	60.6

6) 저축률과 투자율

- 총저축률은 80년대 후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여 1988년 40.4% 까지 높아졌다가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8년에는 30.7%를 기록
 - 민간저축률도 1988년 33.4%을 정점으로 낮아져 2008년에는 21.3%로 하락
- 국내총투자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후 기업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 투자재원 자립도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총저축액이 국내총투자액을 웃돌아 100을 계속 상회하다 2008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로 98.4를 기록

<총저축률 및 투자율>

	1970	1980	1990	2000	2008
총 저 축 률	17.4	24.3	37.8	33.0	30.7
민 간	10.8	19.2	30.3	21.4	21.3
정 부	6.5	5.1	7.5	11.6	9.4
국 내 총 투 자 율	25.4	33.0	38.0	30.7	31.2
(국내총고정투자율)	24.9	32.0	36.1	30.1	29.1
투 자 재 원 자 립 도 ¹⁾	68.3	73.7	99.6	107.6	98.4

주 : 1) (명목 총저축액 / 명목 국내총자본형성) × 100